

219

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

봉헌

강청란 작사
Louis Bourgeois

1. 주 여 내 몸 과 내 - 마 - 음 기 주 뽐 과 설 유희
2. 이 잡 시 치 날 세 - 상 - 후 주 를 영 원 허

다 바 치 오 니 네 아 들 예 수 희 생 보 - 사
모 시 오 리 라 우 리 채 생 명 주 시 고 - 자

우리 제 물 을 받 으 옵 소 서 우 리 제 물 을 받 으 옵 소 서
고통 을 줄 겨 받 으 시 었 네 고 통 을 줄 겨 받 으 시 었 네